

Root resection of periodontally compromised root of molar

이선경*, 방은경

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치주과학교실

연구배경

Root resection procedure는 1884년 Farrar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. Root resection의 예후에 대해서는 상반되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다. Klavan et al.(1975)은 3%의 실패율을 보고한데 비해 Langer et al.(1981)은 38%의 실패율을 보고하였다. 하지만 합병증이 흔히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원인은 치주적인 것이 아닌 주로 근관치료 실패나 치근파절에 의해 발생한다. 1989 World Workshop in Periodontics에서는 “root resection therapy는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는 치주치료법의 한 부분으로 여전히 필요하며, 특히 그 치아가 전략적으로 중요할 때 그러하다”고 하였다. 즉, 신중한 case selection을 통해 적절한 적응증에 시행한다면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.

Root resection procedure에는 root amputation, root seperation, hemisection이 있다. 이번 발표에서는 다근치에서 하나의 치근에 severe bone loss가 관찰되어 root amputation 및 hemisection을 시행하고 잔존 치근을 보존한 3개의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.

연구재료 및 방법

Case 1(41/M)

상악 우측 제1대구치의 distobuccal root에 severe bone loss가 관찰되어 root amputation을 시행하였다.

Case 2(42/M)

하악 좌측 제2대구치의 distal root에 severe bone loss가 관찰되어 hemisection을 시행하였다.

Case 3(62/M)

하악 우측 제1대구치의 mesial root에 periapical lesion과 함께 severe bone loss가 관찰되어 hemisection을 시행하였다.

연구 결과

3개의 증례에서 severe bone loss를 보이는 root를 resection한 후 잔존치근의 동요도는 없었다. 이후 근관치료 및 보철수복까지 진행하여 현재까지 큰 합병증 없이 기능하고 있다.

결론

Root resection procedure는 적절한 case selection시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술식이다.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주적, 보존적, 보철적 지침을 준수하여 치료시 예방할 수 있다.